

이병편

상벌은 스스로 행하라

명군은 형과 덕으로 신하를 통솔하며 형은 벌이며 덕은 상이다.

간신은 임금을 조종해 형과 덕을 본인이 내리려 한다. 결국 임금은 신하에게 본인의 자리를 빼앗길 뿐이다. (제나라 전상과 임금 간곡의 예)

상벌 중 하나라도 빼앗겨서는 안된다. 전상은 벌은 원망을 사니 자신에게 맡기라 임금을 현혹하였고 임금은 전상에 게 왕위를 위협당할 뻔 했다.

상벌의 운용

임금은 이름과 얼굴을 살펴 보는 것은 하는 말과 하는 일을 맞춰보는 것과 같다.(그만큼 중요하다.)

신하가 '이만큼 일을 하겠습니다.' 하였을 때 그 이하로 하면 벌주어 마땅하며 그 이상을 해도 벌주어야 한다. 이는 작은 약속을 하고 큰 공을 세워 더 큰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하가 자기 직분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소후는 이불을 덮지 않은 채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그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누구의 짓인지 전의에게 묻자 전관이 했다고 대답하였고 소후는 이 둘 모두를 벌하였다. 전의가 해야 할 일을 전관이 했기 때문이다.

종고 싫음을 나타내지 마라

유능한 사람은 임금의 자리를 위협하고 무능한 사람은 능률이 낮다.

유능한 사람은 본래의 모습을 감추려한다. 임금이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면 신하는 그에 맞춰 모습을 바꾼다. 즉, 신하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임금은 감정을 겉으로 내보여서는 안된다.

신하와 임금은 서로 바라는 것이 있다. 즉,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다.

십과편

전장에서의 술

작은 충의는 큰 충의의 적이다.

부하가 고생한 자반을 위해 술을 올렸고 **자반**은 장군임에도 전장에서 술을 마셨다. 하지만 왕이 장군이 전장에서 술을 마신걸 알아버렸고 그를 대죄로 다스렸다.

보물을 맡긴다.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 큰 이익을 해친다.

진나라 현공은 꾀나라를 치기 위해 우나라에게 길을 열어달라 하였다. 이때 보답으로 말과 보석을 주었는데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나라 임금은 길을 열어주었고 꾀나라가 멸망하자 진나라는 우나라도 공격해 두 나라를 모두 멸망시켰다. 진나라는 우나라에게 준 말과 보석을 다시 되찾았다. 보물을 준 것이 아닌 맡긴 것이었다.

굶어 죽은 영왕

함부로 난폭한 짓을 하고 **제후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몸을 망친다.

초나라 영왕이 제후들에게 난폭하게 대했다가 반란으로 도망간 후 굶어죽었다.

음악에만 열중하는 것

정치를 팽개치고 음악에 열중하면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린다.

평공은 악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노래를 들었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노래를 듣자 바람이 불고 비가 온 뒤 잔칫상을 두른 장막이 찢어지고 그릇과 지붕 위 기와가 깨졌다. 이후 나라에 3년간 가뭄이 오며 평공 자신도 중병을 앓았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지백은 위나라와 한나라에게 땅을 빼앗은 후 이 둘을 수하로 붙여 조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나라는 오히려 위나라와 한나라를 설득해 세 나라의 공격을 받았고 지백은 나라와 함께 죽고 말았다.

여자들의 노래와 춤에 열중하는 것

여자의 노래와 춤에 빠져 정치를 잊으면 나라를 망친다.

진나라 목공은 용나라에 여악공 12명을 보냈고 용나라 임금은 크게 기뻐하여 하루종일 춤과 여자에 빠져살았다. 용나라의 신하였던 유여는 실망하여 진나라에 몸을 의탁했고 진나라는 그를 상경의 벼슬로 임명하여 용나라를 정복하게 하였다.

검약으로 나라를 세우고 사치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 요임금에서 순임금 우임금 천자의 시대에 이르기 까지 임금이 사치를 부릴수록 배반하는 나라가 많아졌다. (요0 순13 우 34 천자 53나라가 배반하였다.)

본거지를 비워두는 것

나라를 떠나 먼 곳으로 놀러가서까지 충언을 간하는 사람을 소홀히 하지 말라

전성자는 먼 바닷가에서 놀며 '나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그의 대부 안탁취가 돌아가자 하였고 결국 그를 죽이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그는 그가 나가있는 사이 반란을 꾸미던 자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탁취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것이다.

충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

자신이 잘못하고 충신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고집을 부리면 명망을 잃게 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다.

환공은 충신 관중의 도움으로 천하 오패의 대장이 되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관중이 은퇴할 나이가 되자 그에게 그의 후임자로 누가 좋을지 물었다. 관중은 습봉을 추천하였지만 그가 죽자 환공은 습봉 대신 수조를 그의 후임자로 임명하였다. 이후 수조는 포숙아 개방 등 대신들과 싸고 반란을 일으켰다.

외국의 힘에 의지하는 것

자기 힘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국에 의존하는 것은 나라를 약하게한다.

한나라 양왕은 초나라의 화친을 믿고 진나라에 대항하였으나 끝내 초나라는 원군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한나라는 진나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힘도 없으면서 예를 모르는 것

작은 나라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무례를 일삼고 충언하는 신하를 무시하면 망한다.

진나라 공자 중이가 조나라 왕에게 무례한 대접을 받았다. 조나라 회부기는 이를 불안히 여겨 중이를 극진히 대접했고 진나라로 돌아가 왕이 된 중이는 이후 조나라를 쳐 멸망시켰지만 회부기와 그의 식솔만은 살려 두었다.

고분편

중신의 해

술(술법 계략)에 능한 사람을 앞을 내다보며 모든 것을 깨우친다.

법에 능한 사람은 뜻이 굳세고 행동이 철저하다.

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중신은 임금의 명 없이도 행동하며 사리사욕을 채운다

술법에 능한 신하와 중신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신하가 득세하면 중신이 사라지지만 중신이 출세하면 그들은 다른 나라의 임금과 그들 같은 벼슬들 임금의 측근과 학자들을 무기삼아 숨게 된다. (다른 나라 임금은 외교를 벼슬들은 더 높은 벼슬을 측근들은 자리 유지를 학자들은 등용을 위해 중신에게 아부한다.)

임금이여 눈을 떠라

중신은 임금에게 아첨하여 언제나 임금 곁에있다.

법술에 능한 신하는 임금에게 법과 술을 들며 임금의 잘못을 지적한다. 오직 임금이 눈을 떠야만 그들이 임금에게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군주의 권위냐 중신의 권위냐

법술에 능한 신하는 중신에 의해 법으로 든(누명) 자객에 의해 서든 죽고 만다.

임금의 눈을 가리는 신하는 중신에 의해 더 높은 관직에 오른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왕조가 변하는 것이 곧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중신의 권위가 더욱 커지는 것은 곧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중원의 패자를 노리던 임금들은 월나라가 너무 먼 곳에 있어 자신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나라는 중신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자신들의 나라나 너무 먼 나라나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인재 등용 반대

측근의 말만 믿고 인재를 등용하면 청렴 결백한자와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할 수 없다.

임금과 신하의 모순

임금의 이익과 신하의 이익은 서로 다르다. 중신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중신의 신하로 들어가면 언젠가 화를 당하게 된다. 그들이 저지른 해악 대다수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머리가 총명하자는 이런 미래에 대비해 중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과 어울리는 자는 멍청하거나 악한 짓을 예사로 알고 사는 몰염치한 자들이다.

세난편

진언의 어려움

진언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 그 마음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명성을 원하는데 신하가 그에게 재물을 얻을 방법을 논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재물이나 탐내는 천박한 인간으로 안다며 노여워 할 것이다.

설득의 위험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지 말자

다 안다고 너무 나대지 말자 (줄라 긴데 그냥 이게 끝자임)

상대에 따라 말하기

P102부터 읽어보세요.

읽기 싫으면 대충 **말을 돌려하고 직언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를들어 망설이는 임금에겐 대의명분을 들어 자신감을 주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임금에겐 같은 예(같은 사례)를 들어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라.

아는 것을 쓰기가 어렵다.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안 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나라 임금 무공은 되나라를 칠 때 그의 딸을 주고, 되를 치자고 충언한 **신하 관기사**를 죽여 되나라 임금이 마음을 놓게 만든 후 되나라를 공격했다.

송나라 어느 부자집 담이 무너지자 이웃집 사람이 도둑이 들것이라 말하였다. 정말로 도둑이 들자 부자는 도둑이 들 거라 예견한 이웃사람을 의심하였다.

관기사와 이웃사람은 아는 것에 그쳤고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사례이다.

역린을 건들지 마라

상대방이 날 좋아할 땐 뭘 해도 사랑받고 미워할 땐 뭘 해도 미움 받는다. **상대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다음에 행동하라**

영공은 미색이 출중한 **미자하**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밀자 좋아했지만 그가 늙자 그가 이전 자신이 먹던 복숭아를 권했다고 화를 내며 그에게 벌을 내리었다.

화씨편

진리가 인정되려면

화씨는 임금에게 옥을 바쳤으나 감정사가 이를 돌이라 하여 발이 잘리는 벌을 받았다. 그는 사흘 밤낮으로 울었는데 발이 잘려서가 아니라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억울해서 울었다고 한다. 이후 그가 진상한 돌이 옥임이 밝혀지고 이를 **화씨벽**이라 부르게 되었다.

어째서 법술이 싫은 것일까?

술은 중신을 배제하고 법은 떠돌이 백성을 정착하게 만들어 침략에 대항하게 만든다. 즉 **법술은 백성과 신하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다. 임금이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법술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본인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임금에게 법술을 따르도록 간언하지 않은 것이다.

난세가 평정되지 않는 이유

진나라 효공의 신하 상앙은 효공에게 연대책임을 지며 문학이나 역사가 아닌 법에 따라 백성을 통치하라 하였다. 그에 의해 진나라는 태평성대를 맞았지만 효공이 죽자 상앙은 거열형을 당해 죽었다. 이는 백성이 지나친 통제를 싫어하며 대신들이 자신을 괴롭힌 법을 방해물로 알기 때문이다.

오늘날 난세가 평정되지 않는 이유는 상앙처럼 위험을 무릅써 가며 법술을 말할 사람이 나올리 없기 때문이다.

망징편(망국의 징조)

학문 도락 우유부단

- 1 대신의 집이 임금보다 크고 신하의 권위가 임금의 권위를 능가한다.
- 2 임금이 법치가 아닌 책략에 의존하고 외국 원조에 의존한다.
- 3 신하가 학문에 힘쓰고 재능있는 청년들이 공리공론을 일삼으며 신하들이 주먹에 의존한다.
- 4 임금은 궁궐을 꾸미는데 열중하고 도락에 빠져 재물을 낭비한다.
- 5 귀신과 점을 믿는다.
- 6 신하의 진언이 마음에 들어 상을 내리고 실제 성과는 보지 않는다. 연락도 일부 수하들에게 맡기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임한다.
- 7 중신에게 잘보이면 관직에 오를 수 있다.
- 8 임금이 자기주장이 없다.
- 9 임금이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려 이익만 되면 뭐든 한다.
- 10 원칙없이 형벌을 내린다. 실용적인 걸은 무시하고 겉치레만을 일삼는다.

수다스런 임금

- 1 임금이 감춰두는 일이 없고 입이 가벼워 신하들이 말한 내용이 모두 밖으로 새어나간다.
- 2 독선적이고 가볍게 움직이는 주제에 자신만만하다
- 3 먼 우호국을 믿고 가까운 나라와의 외교는 등한시한다
- 4 타국인이 가족 재산 없이 홀몸으로 와서 신임을 얻고 중책을 논할 수 있다.
- 5 민심이 임금을 떠나 재상에게 쏠려있는데도 재상을 신뢰한다.
- 6 국내 인재를 무시하고 국외인을 등용하며 공적이 아닌 명성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 7 정실의 공자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다른 공자들이 동등한 세력을 얻는다.

적의 경시와 내부분열

- 1 임금이 태만하고 적국을 우습게 본다
- 2 약소국임에도 강대국인 척 하며 대국을 예로서 대하지 않는다,
- 3 태자를 세워 두었음에도 새로운 정실을 맞아 내부분열을 일으킨다.
- 4 겁이 많고 신념이 없다.

- 5 내부분열을 부추긴다.
- 6 대신에게 모욕을 주어 반란을 부추기고 백성들을 지나치게 엄히 다스린다.
- 7 유력한 대신 둘이 서로 양보없이 싸운다.

호전적이며 여론을 무시

- 1 아침하는 무리를 믿고 세상의 비난에도 법을 벗어난 짓을 계속한다.
- 2 대신을 모욕하고 손윗사람을 무시하며 백성을 수탈하고 무고한자를 벌한다.
- 3 공적인 일에 사적인 정을 더하고 온갖 구실을 붙여 법을 고친다.
- 4 전쟁을 건딜 힘이 없음에도 싸움을 건다.
- 5 어린 임금이 즉위하여 대신이 득세하고 결국 타국에 의지하며 영토를 빼앗긴다.
- 6 일찍부터 태자의 세력이 강해 타국과 결탁하는 일이 발생한다.
- 7 시야가 좁고 성질이 급하며 쉽게 화를 낸다.
- 8 농사에 힘쓰지 않고 쉬이 군사를 움직인다.

대신의 항쟁 내전의 혼란

- 1 대신들이 서로 번복하고 사사로이 전쟁을 벌임
- 2 임금보다 그 형제가 뛰어나며 태자보다 다른 공자의 권위가 강하고 관리보다 백성이 더 강하다
- 3 임금이 화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벌을 가하지 않는다. 신하들이 두려워하며 갈피를 못잡게 한다.
- 4 군 지휘관에게 너무 큰 권한을 준다.
- 5 왕후와 태후가 지나치게 정치에 간섭해 왕후파와 태후파가 맞선다.
- 6 측실의 권세가 정실보다 높다.

대신전횡 부당인사

- 1 대신의 권위가 지나치게 크다
- 2 공적인 것을 무시하고 사적인 것을 논한다.(항간의 선행 명성 > 실제 성과)
- 3 호적이 있는 내나라 백성을 무시하고 떠돌이 장사치 등을 챙긴다.
- 4 인의의 가면을 쓰고 자기 행동을 꾸미기 급하고 전쟁을 모른다.
- 5 일반 백성의 효를 따른다. 즉 태후의 말에 순종한다.

- 6 능력은 있으나 법과 술에 능하지 않다.
- 7 고참이나 능력있는자가 푸대접받고 쫓내기나 능력없는자가 승진한다.
- 8 임금 측근이 능력 이상의 대접을 받는다.
- 9 임금의 사위나 손자가 민간에 살며 백성을 깔본다.

기회를 주어라

망징이 있다 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누가 망하고 흥할지는 그 당시 정치와 세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부러지고 넘어지려면 계기가 필요 하다.

비내편

화는 오히려 **가까운 자(정실 측실)**에 의해 생긴다. 이는 이들이 이익을 쫓기 때문이며 이들을 막을 대책은 오직 법술 뿐이다.

임금은 사람을 믿지 마라

임금이 사람을 믿는건 해로운 일이다. 신하는 임금의 핏줄이어서가 아닌 권위에 눌려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이 아들이나 왕비를 믿으면 속 검은 신하가 이들을 이용해 임금을 시해한다.

왕후가 임금이 죽길 바랄 수도 있다. 특히 아들이 태자이면 더더욱 그렇다. 왕후는 임금과 혈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늙으면 자신은 버림받고 자신이 버림받으면 태자 역시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좌춘추에는 '올바른 죽음을 맞이한 임금은 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

화는 사랑하는 자로부터

후비와 태자의 파가 임금이 빨리 죽기 바라는 것은 그들이 임금을 미워 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미운자들을 아무리 살피도 화는 안에서 발생한다.

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가까운 사람을 살피야 한다.

설림상, 하편

사화나 일화를 모아 놓음

소개

자어가 상나라 대신에게 공자를 소개하였다. 대신은 공자가 자어보다 뛰어나니 임금께 소개할 것이라 말하였다. 그러자 임금의 총애를 잃는 것이 두려워진 자어가 대신에게 그럼 당신도 임금의 총애를 잃을 거라 말했다. 대신은 임금에게 공자를 소개하지 않았다.

상대의 약점

오자서가 망명 도중 국경 군사에게 잡혔다. 오자서는 군사에게 임금이 자신을 쫓는 것은 자신의 보석을 탈취하기 위해서이며 자신이 잡히면 당신이 보석을 삼켰다고 말할 것이라 하였다. 군사는 배가 갈라지는 것이 두려워 오자서를 놓아주었다.

강적 제거법

한나라 재상 엄수와 주군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주군의 뜻을 안 풍저는 주군에게 한나라 왕의 총애를 받는 한귀를 암살하라 말했다. 한나라 왕은 재상인 엄수가 권력을 위해 한 짓이라 착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꾀엔 속지 않는다.(p165)

증종자는 칼을 잘 감정하는 인물이다. 그는 위나라 왕이 오나라 왕에게 악감정이 있음을 알고 위나라 왕을 찾아갔다. 그리고 오나라로 찾아가 칼을 감정하는 척하며 오나라 왕을 시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위나라 왕은 그를 쫓아냈다.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며 빈약한 위나라보단 부강한 오나라를 위해 자신에게 그런 수법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개소리야)

지나치게 많이 아는 사람

임금이 밤낮으로 놀아 날 가는 줄을 몰랐다. 놀다 지친 그가 신하에게 오늘이 몇일인지 물으니 같이 놀던 신하들 그 누구도 오늘이 몇일인지 몰랐다. 임금이 기자에게 사람을 보내 날짜를 물었으나 기자는 온 나라가 모르는 것을 자신만 안다면 자신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 모른다 대답했다.

욕심은 눈을 어둡게 한다.

위나라 어떤 사람이 딸을 시집보내며 대부분의 며느리는 쫓겨나니 몰래 재물을 모으라 말했다. 이에 딸은 시집가서 몰래 재물을 모으다 시어머니에게 들통이 나 쫓겨나고 말았다. 하지만 딸은 모은 재물을 모은 지혜를 자랑할 뿐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못했다. 오늘날 대신들의 모습이다.(재물을 몰래 모으지 않았으면 안 쫓겨나지 않았었나 이런 말 같음)

----하편은 교훈 등장인물 순으로 적음-----

이익이라면

이익만 되면 누구나 맹분 전제와 같은 용사가 되다.

천리마와 짐말

명색은 천해도 크게 쓰인다.

조각의 원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의해가며 행동하자

환혁

부의 한계

부의 한계는 만족이므로 욕심많은 인간에게 부의 한계란 몸을 망치는 것이다.

환공/관중

실패보다 뒤�처리

실패를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뒤�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감지자

이들의 단결

미래를 위해 서로 단결하자

관포지교

관중 같은 위대한 인물도 친구 포숙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관중/포숙

죽는 것이 좋다.

신하 한명이 죽어도 나라 하나가 무사하면 그것이 좋다.

저위 / 궐옹

승리의 기회

몰라p184

의상 / 자기

신용이 중요하다

제공내

악정자춘

사람을 죽이려면

적당한 선이 아니라 확실히 숨통을 끊어라.

오자서

애초에 짧아서 줄이는게 의미 없으니 설림하편은 직접 빌려서 읽는거 추천 교훈만 적음

-----p172~p189 읽어보기-----

내저설상편

칠술에 대한 이야기로 신하를 조종하는 7가지 방법. 상이 박하고 믿을 수 없으면 부하는 일하지 않지만 상이 후하고 분명히 행해지면 부하는 목숨바친다.

칠술이란?

- 1 신하의 말을 사실과 맞춰보며
- 2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벌 주고
- 3 공로자는 반드시 상주며
- 4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 5 속임수를 쓰지 않고
- 6 모른체하며 상대를 시험하며
- 7 헛말과 거짓말로 상대를 시험할 것

신하의 말을 맞춰볼 것

숙손은 신하 수우의 말에 속아 아들 임과 병을 죽인 후 본인마저도 수우에 의해 살해당했다. 숙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방공은 한단에 인질로 붙잡혀 가게 됐다. 출발 전 방공은 위나라 임금에게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부탁하였으나(세명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단 속담을 예로 들) 한단에서 방공이 돌아왔을 때 임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 방공을 만나지 않았다.

법을 어긴 자를 반드시 벌할 것

형벌을 엄격히 해야 금령이 행해진다.

나라소유의 광산에서 금을 몰래 캐면 사형이지만 매년 금을 캐는 사람이 나온다. 이는 붙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누구도 금을 캐려하지 않을 것이다.(천하를 주되 대가가 목숨이면 아무도 받지 않는다.)

공로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줄 것

오기는 확실한 상벌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 백성들에게 먼저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관직을 준다 하여 순식간에 성을 점령하였다.

자기말에 책임을 지게 할 것

제나라 선왕은 합주를 즐겼다. 이에 그를 위해 생황(악기인듯)을 불겠다는 처사(악사인듯)가 수백이 넘었다. 선왕이 죽고 민왕이 임금이 되었다. 민왕은 독주를 즐겼는데 그를 선왕때 모였던 처사들이 모두 도망가버렸다.

소후: 합주 중 누가 연주를 잘하는지 모르겠다.

전엄: 독주를 시켜보면 됩니다.

속임수를 쓸 것

영뚱한 것을 물으면 속이지도 못한다.

상나라 재상이 소서자를 시켜 시장을 둘러보게 했다. 소서자는 시장에서 많은 소를 보았다고 고했다. 이에 시장은 소서자에게 자신의 명령을 함구하라 명한 후 시리를 불러 쇠뚱을 치우지 않았다고 나무랐다.

모르는 척 시험할 것

모르는척 물으면 진짜 몰랐던 것까지 알 수 있다.

소후는 손톱을 깎다 손톱을 숨기고 신하에게 손톱이 사라졌다고 일렀다. 신하는 제 손톱을 잘라 손톱을 내보였고 소후는 그가 거짓되단 사실을 간파하였다.

거짓말과 꾀로써 시험할 것

연나라 재상 자지는 거짓으로 지금 밖으로 나간 말이 백마인지 물었다. 이에 신하 중 한명이 밖으로 나간 후 그렇다 대답했다.

위나라 사공은 부하를 변장시켜 관문을 지나가며 관리에게 돈을 주게 했다. 이후 관리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꾸짖었다. 관리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내저설하편

육미에 관한 이야기. 권세를 신하에게 넘기면 안되며 세력다툼 내란의 근본이 된다.

육미

- 1 임금의 권세를 신하에게 빌려주는 일
- 2 임금과 이해를 달리하는 신하가 외국세력을 이용하는 일
- 3 신하가 술책을 꾸미는 일
- 4 이해가 대립되는 데 신하가 끼어드는 일
- 5 내분이 일어나는 일
- 6 적국의 모략에 의해 신하를 임면하는 일

p216부터 읽어보기(이야기가 다 짧고 제곧내임)